

"200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투쟁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반동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위기극복을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다양성의 정치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법 개악에 맞선 국회투쟁을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장시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해야만 출산 휴가 몇 일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답시고 출산 휴가를 따내기 위해 노동법 개악에 찬성표를 던진 수많은 여성·노동 단체들. 우리는, 여성 노동자란 아이를 낳는 몸으로 취급될 때에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뼈저린 현실을 느껴야 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트랜스젠더 스타가 칭송을 받는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 스타가 아무리 떠도 우리는 그를 통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대상화된 스타, 상품화된 스타 앞에서 상품화되지 못하는 우리는 다시금 매체를 통해 왜곡되는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름 앞에 퇴폐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나마 최소한의 소통의 공간이었던 각종 통신 커뮤니티들을 청소년 보호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폐쇄하는 현실을 봅니다.

테러와 보복전쟁의 포연을 생각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의 감수성이 자극되고, 제국주의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전쟁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미나 친미나 극단적 대립 속에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야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최고로 여성을 위하는 양, 여성들에게 한 표를 부탁하는 수많은 보수 정치계인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흘뿌린 금권의 잔치판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표를 찍으면서도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막연한 기대가 선거는 끝난 후 언제나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반동의 물결에 맞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씩씩이 투쟁해 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진정 여성의 요구들을 망설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여성 노동법 개악에 맞서 국회에서 살다시피 격렬하게 對국회투쟁을 벌여냈고, 우리를 퇴폐라 규정하는 사회에 맞서 신촌을 행진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테러와 보복전쟁, 광폭한 폭력에 맞서 여성의 이름으로 평화를 말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이 땅 모든 여성들의 이름, 여성해방의 이름으로 가부장제 철폐를 외치며 동대문에 여성해방선봉이라는 우리의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장애여성들의 이동권 투쟁,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온갖 성폭력에 맞선 여학생들의 투쟁, 남성들의 무력다툼 속에 식민화되는 세계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투쟁, 그리고 무수한 투쟁들.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 무수한 희망들에 이름을 붙이고 끊임없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 곳곳에 울려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성해방, 사회적 소수자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침묵 속에 간혀 있거나 일그러져 왔던 우리를 깨치고, 우리들의 온전한 이야기를 세상에 크게, 아주 크게 외쳐봅시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활기찬 이야기를!

●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3차 회의

일시 : 2002년 2월 19일 오후 8시

장소 : 이대총학생회실

◀중앙대 흑색총학생회 중앙대인성총학생회 관악동연 관악인문대 수혜총학생회
이대총학생회 전대협 경대총여 전협협 항공대여성학회 준예모임 연세대총학생회▶